



충청북도 의회 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62회 정례회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도정시책 청취

충청북도의회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제 262회 정례회를 열고 정우택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제명 피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제262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시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등 기타 현안을 처리하였다.

의 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도내 주요 도로건설 현장과 수해 복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하고 주민참여제도에 관련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 등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명암다위건선텐센터에서 광역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예산결산특별위원 13명 선임 -



김 화 수 위원장

충청북도의회는 7월 10일 제 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의회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하였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위원장에 김화수 의원, 부위원장에 권광택 의원, 위원에 강태원, 김인수, 민경환, 박종갑, 연만흠, 오용식, 이규완, 이언구, 임현, 장주식, 최광욱 의원이며, 오는 2008년 6월까지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활동을 하게 된다.

새로 선임된 김화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재정운용과 환경, 제도에 발맞춘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김위원장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의식과 책임성·전문성을 중시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12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의 균등분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한 위원연찬을 강화하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광 택 부위원장



강 태 원 위원



김 인 수 위원



민 경 환 위원



박 종 갑 위원



연 만 흠 위원



오 용 식 위원



이 규 완 위원



이 언 구 위원



임 현 위원



장 주 식 위원



최 광 욱 위원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7. 9. 11. ~ 9. 18. (8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의안건
9. 11.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3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7. 9. 11. ~ 9. 18.(8일간)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기타 안건 처리
9. 12. ~ 9. 13.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9. 14. ~ 9. 17.	● 본회의 휴회 ※결특별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9. 18. (11:00)	●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위원회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 기타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 시·군 불균형해소 정책 연찬회 ● 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 간담회 ●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보육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기타 현안 처리
건설문화위원회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자문위원회의 간담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개회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주요사업 면밀히 검토 해야...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입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 8대 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기치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선 4기 출범 1년 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1조 5천억원의 팔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충북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2회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 점검과 함께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그리고 조례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하절기 무더위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연초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해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도민의 뜻을 깊이 인

식하시고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맞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대비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가 우리 8대 의회의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처리의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부서별 분장 사무,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
- 부서간 위임사무 조정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관리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상위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법령을 정비하고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명칭 변경
- 위탁대상기관 변경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하고 입법예고, 공포 등 개별 자치법규로 나누어 있던 입법체계 관련규정을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입법예고

-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청회 제도 도입

- 입법안 작성 및 심사
-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

◆ 충청북도 조례제정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정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우리도의 경우 조례 제정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혼용되고 있어 도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자치법규 포함)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하여 입법의 경제성·효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백두대간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제25회 도의회 의결을 얻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취득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 충청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 등 규정
- 위해로부터 보호, 거래의 자유 등 소비자 권리 규정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 규정
-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교육 등 소비자 능력향상 규정

◆ 충청북도 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충청북도 농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물은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2005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유 재산인 충청북도 농촌 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산물,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을 명확히 규정 등

◆ 충청북도 순환수렴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조수보호 및 수렴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렴장의 운영관리사무

가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이 분법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도 개정되어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아생 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용어변경 등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조항 신설 등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도로법시행령의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인상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평균 38%인상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 2006회계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6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8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2회 정례회 회기중 7월 10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제262회 정례회 개회시간 변경협의의 건,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처 소관)을 심의 의결하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제262회 정례회 개회시간 변경협의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참석 관계로 2차 본회의 개회시간을 7월 20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기로 하였으며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등을 실시하고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3인 이내로 선임하여 2007년 7월 1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예산현액 6,283,778천원 중 95.3%인 6,087,540천원이 집행되고 4.7%인 298,23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맡은 바 분야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7월 10일 제1차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결산안 심사

7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2건 의원발의 조례 제정



▲ 현지활동 7월 18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부지에 대한 현지설명을 듣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7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세수추계가 매년 17% 이상의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공직선거법」의 상시행위제한 및 소극적 선거관리 등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철저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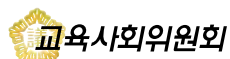
연관과 수요예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과 충청북도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7~8년동안 1천억원 이상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7월 13일과 17일에 열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혁신도시 선정, 공공기관 이전 배치, 각종 협오시설 등의 지역 선결과 추진과정에서 시·군간, 주민간, 상호 지역이기주의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조정·해결 능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여 충청북도 행정의 추진력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문제해결 방안제시 등 적절한 대응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능력 제고 방안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오송·오창산업단지의 국가과학연구단지 지정, 오송·오창 U-CITY 건설 등 청주권에 유치된 경제 인프라 거점 자원이 낙후 시·군과 연결될 수 있는 불균형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7월 19일에는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강대원 의원 외 6인이 입법 연찬에 의거 발굴한 2건의 조례 제정 발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치법규인 조례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업무 관련 규정이 조례, 훈령 등 여러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도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가 체계화되고 입법과정에서의 공정화가 도입되는 등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자치입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밖에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도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 및 도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린 제262회 정례회를 맞아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회기기간 중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전년대비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예비비의 과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소외계층 등에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도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예산추계의 부정확성과 사업계획의 연계성이 결여된 예산편성 및 예비비의 부적절한 지출을 지적하고, 향후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한 예비비 지출을 주문하였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수시 점검의 확행 등으로 적기 사업완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시범운영 발표회에 참석하여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현황 발표를 청취하고 시연부스도 돌아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썼다.

결산안 심사 ▶
7월11일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업무보고 청취
7월 13일 청주·충주 의료원 2007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및 정부 역점 추진사업 준비 당부



▲ 7월 11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62회 정례회 기간중 소관부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 조례안 심사, 그리고 경제투자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지난 7월 11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제투자본부의 결산심사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과다한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사

업의 사전계획 및 예측이 결여된 것으로 향후 예산 계상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정본부의 결산심사에서는 예비비지출은 도내의 긴급 현안 사안을 위한 예산으로서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긴급 자금인 만큼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의 효과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업기술원의 결산심사에서는 일부 부서의 4%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 사전계획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7월 12일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충북대학교 서도원 교수와 이철원 교수를 추천하였다. 이어서 이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이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특산물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류기업 유치,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매력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가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에서 충청북도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정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고품질·친환경 농업육성,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최근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제는 기능성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정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농가소득 향상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개발 등에 관하여 청취한 후 생산·경영·정보기술의 집약으로 도시민이 동경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등 현안 처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실시된 제262회 정례회 기간중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역점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실운영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에서는 이용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및 보은~내북간 국도확포장사업 등 13건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4천 7백여억원의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어, 역점추진현안사업인 도립예술단 설립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공연과 관람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도립예술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추진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주축구단(CJFC)창단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출신의 우수선수를 선발·육성하여 조속히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내실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업무보고청취 ▶

7월 12일 문화관광한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 국회방문

7월 11일 '08년도 예산확보 마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



◀ 간담회

7월 16일 결산심사에 앞서 상호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결산안 심사 ▶

7월 16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16일과 7월 18일에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충청북도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2,536,731,487천원, 세출 2,096,495,411천원, 세계잉여금 440,236,076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전염병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15개 사업에 9,082,756천원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방식의 획기적 개선,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세수확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기금이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거듭되는 수해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당부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1,373,219,505천원, 세출 1,253,992,124천원, 세계잉여금 119,227,38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등 3개 사업에 1,216,776천원이 지출되었다.

아울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학교 교사 신·증축 등의 사업예산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 보호중심의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자원사업이 큰 성과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민족 · 다문화시대를 준비하자



연 만 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4월 13일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공포(조례 제 2994호)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문제를 도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네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는 이미 외국인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4월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4,878만 2,274명의 1.1%에 해당하는 53만

6,627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충북에는 13,88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결혼 자녀수와 불법체류자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족히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은 우리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사회는 벌써 다민족 · 다문화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적 전통이 부재하고 단일민족에 기반한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국제결혼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편견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심심찮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외국여성 출신 국가와의 마찰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 이민자 문제로 촉발된 프랑스 소요사태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2세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학교 졸업후 취업 등에서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받아오자 그동안 쌓였던 좌절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얼마전 유엔의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불태울 수 있다는 상상은 지나친 기우일까? 프랑스 소요사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지원대책, 지역경제

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등 다민족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도 있어야 하겠지만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정된 외국인 지원조례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머나먼 타국으로 와서 언어상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 인종간 편견 등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보다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저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堂堂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머니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살기에는 한국사회가 여러 인종이 함께 섞여 살 여건이 아니었다고 점잖게 말하는 하인즈워드의 말을 소개하면서,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다민족 · 다문화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제안해 본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면서



장 주 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지난해 9월 제8대 충청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변화하는 재정운용환경과 제도에 걸맞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 경험과 연찬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등분배 등을 위해 나름대

로 열심히 노력 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품목별예산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으로 단순한 예산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 배정 · 집행 과정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연계 시키는 예산기법으로 단순한 예산편성과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자, 주민, 공무원들이 업무를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기본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본래의 성과달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이

어려웠던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담당조직의 자율과 책임 하에서 개별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의 기본구조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어느 조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 짐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렇듯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걸맞게 운용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살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어떻게든 성과관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또한, 예산의 변칙 사용이나 낭비 등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도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전략을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이 도입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전쟁의 폐허속에서 태어나 '60년대 보릿고개,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세계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 20세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로 주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제8대 의정활동 1년의 회고



진 영 진

전 도의회자문위원
현 청주시 교육삼학회장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도모함에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8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의회에 제안(의원 및 집행부)된 의안 중 123건을 의결하였고 민원(진정) 해결은 36건에 이르며 당국에 건의도 9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여러차례 개최하였다고 하니 31명의 도의원들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 몇가지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의원의 책무성 강화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겸직금지법을 제정하여 의정에 전념케 하자는 여론이 나오는가 하면 주민소환제의 발효에 따라 비리에 연루되건 무능한 의원은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겠다.

정당공천제의 배제

기초 단체장이나 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다양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공선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 자립도 향상

본 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27.1%에 불과함으로 세금(165조원) 중 지방세가 21%밖에 안됨으로 지방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국제 일부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전환시켜야 하겠고 한편 주민소득향상을 기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의원보좌관제나 지방자치 경찰관제(제주도 시행중)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예산 절감

예산낭비요인의 하나인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의결기구를 앞으로 도의회로 단일화하고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재보선제를 개선하여 본선에서 차점자가 승계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해의연수가 관공성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목적을 투명하게 세워 계획을 도민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충청북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대안제시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민의 대변자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자문위원 위촉



▲ 7월 5일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제 10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장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방안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7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하였다.
(행정자치 이승규, 이명복 위원, 교육사회 한현구, 최승호 위원, 산업경제 이철원, 서도원 위원, 건설문화 정삼철, 이경기, 류을열 위원)

건강보감

더운여름철 땀이 많이나요

더운 날씨와 습도 때문에 조금만 활동을 해도 땀이 흐른다. 땀은 많이 흘려야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흘려도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땀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땀은 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땀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보통 온도자극으로 기온이 높을 때나 운동에 의하여 체내열 생산이 증가되었을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외 긴장 공포와 같은 자극도 땀을 흘리게 만든다.

한의학에서는 배출되는 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피부의 건조를 막는 역할 이외에도

땀은 인체내 장기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상황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비위에서는 이것을 소화시켜 에너지원으로 만든 뒤 온몸의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땀이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사산물 중의 하나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평소보다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는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흘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의학에서는 땀이 나는 것에 대해 '체표를 순환하는 위기(衛氣)와 체내에서 순환하는 영기(營氣)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말한다. 정상적인 경우는 두 기운의 균형이 맞아서 체온조절, 노폐물 배출, 피부의 습도 유지 등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노폐물이 아닌 영양분이 땀으로 새어 나와 땀을 흘린 후 피곤하고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난다.

몸의 균형이 깨져 흐르는 땀은 자한(自汗)이라고 부른다. 자한은 계속 땀이 흐르면서 움직이면 더욱 심해지고 옷을 흠뻑 적실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다. 땀이 마르면서 냄새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큰 고민이 없다.

자한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앞서 말한 위기와 영기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것과, 심장의 열과 비장의 습한 기운이 서로 부딪혀 생기는 경우다. 병원을 찾는 남자는 후자경우였다. 이 경우 계지, 황기, 백작약 등의 약물을 써서 위기를 보하여 영양분이 땀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쓴다.

평소에는 땀이 잘 흐르지 않다가도 수면 중에 나는 땀은 도한(盜汗)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베개가 축축이 젖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다. 도한은 몸 안에 열이 많아 수분을 필요이상으로 증발시키므로 건강에 해

롭다. 이럴 때는 음(陰)과 혈(血)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기본처방으로 한다.

이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불안하고 초조하여 손발에서 진땀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이다. 이것은 심장이 좋지 못하여 오는 것으로 땀을 멈추는 약보다는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자음건비탕, 청심은답탕과 같은 처방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땀으로 인한 증상이라 할 지라도 치료법은 각각의 원인과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땀 많은 여름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운한 목욕을 추천한다. 단, 땀과 매일 찬물로만 샤워하지 말고 1주일에 1회 정도는 30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샤워해야 한다. 땀과 짜증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 따뜻한 샤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편안한 잠을 선사한다.

김태영 <한의학박사>

의원동정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7월 9일 충주 후랜드리 호텔에서 실시된 충주온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충평 제1선거구)

7월 14일 증평초등학교 잔디구장 개장에 참석, 관계자 및 어린이축구대회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7월 18일 가덕면사무소에서 실시된 지역현안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7월 18일 보은군청에서 실시된 말티고개 사파리 공원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법적해석을 위한 간담회 참석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7월 19일 충청북도지치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연수중인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격려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7월 5일~6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 주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협력방안 모색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7월 14일 괴산군 연풍면 송우마을과 (주)국제화해상 손해사정과 농촌사랑 1사촌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 축하 및 주민의견 수렴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7월 18일 괴산 조령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현장을 방문,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7월 27일 청주의료원 지역주민자문위원회 발족식에 참석, 현안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7월 25일~27일 제10회 영동군에서 실시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열린우리·비례대표)

7월 23일 2007년도 충청북도 사회복지예산분석 토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7월 25일~27일 제10회 영동군에서 실시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명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7월 21일 보은군 탄부면에서 열린 대추고을의 해비라기 대항연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원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7월 21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충북로봇경진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7월 11일 충청북도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 직·공장협의회 충북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현안 협의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7월 21일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에서 열린 제1회 your옥천포도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말풀이 세상풀이〉

지피지기(知彼知己) 와 외교전쟁

‘손자(孫子)’는 중국 고대의 병법가이자 전국시대의 장군 손무(孫武)가 저작한 병서(兵書)다. ‘사기’에 따르면 손무는 제(齊)나라 사람으로 병법서 13편을 저술한 무인으로, 오왕(吳王)阖閭(閻闔)를 섬기면서 사방에 그 용맹을 떨쳤다고 한다.

손자 제 1편에는 무모한 전쟁을 엄히 경계하고, 제 2편에는 전쟁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손해와 조기종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 3편에서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므로 계약으로 적의 전의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백전백승(百戰百勝)이나 연전연승(連戰連勝)도 총검과 포화로 인명을 살상하고 거둔 것이라면, 이는 최상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검으로든 협상으로든 부득이 적과 대결해야 할 경우는 적과 자기편의 역량과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의 역량과 나의 역량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고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적의 역량을 모르고 나의 역량을 알면, 이기기도하고 지기도하며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적의 역량과 나의 역량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로울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경쟁 중에 흔히 쓰는 ‘지피지기’란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군인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새겨두어야 할 금언으로 회자되고 있다. 개인 간, 국가 간의 생존경쟁이 포화 없는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포화 없는 전쟁이란 곧 무역전쟁이나 외교전쟁을 가리키고, 여기서 승리 하기위한 방법 즉, 상대의 역량과 전략을 알아내는 수단 역시 정보탐색이란 이름의 전쟁이다.

그 중에 ‘손자’ 3편에서 강조한대로(포화로)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승리를 얻는 것은 곧 외교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한다. 이를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익에 따라 불력을 형성하고 동맹을 결성하며 술한 회담과 방문, 교류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통일과 안보, 무역이란 삼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는 어느 나라보다도 그 역할비중이 크다. 핵무기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외교, 미·일·중·러 4개국과 얽혀있는 안보외교, 수출다변화를 위한 무역외교, 어느 하나가 빠졌어도 국운이 위태로워질 형편이다.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대북 외교가 과연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알고, 옹계 대비하는 것인지? 일부에 전염되고 있는 반미, 반일감정을 방지하고 중국과 러시아 쪽에 기우는 듯한 정부외교 전략이, 4강 틀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 한미 FTA협정에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과의 협상에는 무관심한 농민들의 이중의식,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의 경망한 행태가 대외무역과 국내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재협상에 들어간 한·미간의 무역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외교전에서 우리가 부딪힐 문제도, 마주해야 할 상대국도 모두가 만만찮다. 등 뒤에 칼을 숨긴 상대가 있는가하면, 파렴치로 일관하는 상대가 있고, 혈맹을 강조하면서도 국익 선점에는 양보가 없는 상대가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는 척 하면서도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지 않는 거만한 상대도 있다. 이러한 상대국

들과의 외교전에서 우리는 그들의 역량과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고 합당한가? 모두가 국익과 국운이 좌우될 문제다

정부의 외교 전략목표가 대외협상에서의 국익선점에 있지 않고, 국내정치의 기선잡기에 있다면 이런 큰일이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첫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마지막 ‘핵불능화’ 단계까지의 길은 멀다. 북의 요구조건이 많고 까탈이 많기 때문이다. 북은 지금 6자회담의 진전보다 한국을 소외시킨 채 아직 효력이 남은 핵 카드를 걸고 미국과의 양자담판확약에 더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금강산 남북정상회담을 북에 제의할 방침’ 이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대선(大選)의 기선잡기용이라면 ‘적의 역량도 모르고 나의 역량도 모르는’ 백전백패의 최하위 전략이요, 소수위정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담보로 내거는 ‘한탕주의 외교’다.

불행했던 근대사를 반복하기 전에, 눈을 크게 떠야 할 요즘에 와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귀에 익은 ‘손자’의 명구(名句)가 새삼스러워진다.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